

문학과 철학의 경계

내가 알기에는 철학에 입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문학작품을 열심히 탐독하다가 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람이 꽤 많다. 아마도 문학작품이 던져주는 삶에 대한 성찰에 영향을 받거나 존재의 이유 등에 관한 물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철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이들 중에는 철학에 입문해서 무척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철학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문학작품에서 얻었던 영감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진실 된 삶의 방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자. 내가 보기에 이런 설정은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독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 실제로 생각해 보게 된다고 여겨진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를 던져 준다.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률은 어떤 것인지, 양심이란 무엇인지 등등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된 청년이 철학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 윤리학 입문서를 읽게 되었다고 해보자. 이 청년이 철학 책에서 얻게 되는 해답은 대체로 두 가지다. 벤담이나 밀 같은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선이다”라는 명제와 칸트 같은 의무론적 철학자가 말하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써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정언명법이 그것이다. 이런 명제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는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민, 청년인 소냐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 등등은 모두 사라진 채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차가운 정의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청년이 죄와 벌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 작품이 윤리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공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 자신의 삶과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철학 책에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연인이나 원수도 등장하지 않는다. 굳이 주인공을 찾자면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삼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보편적인 인간에 관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추론능력이나 고도의 추상적인 사고력 같은 것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사고능력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철학 책에서 삶의 냄새를 맡기 전에 대부분 질려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독자가 이성적인 사고능력을 적절히 교육받지 못한 탓일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편하게 말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나는 그 원인을 플라톤에게 까지 소급해서 묻고 싶다. 플라톤이 추구했던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진리의 개념이 2천 5백 여 년 간의 지성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플라톤식의 진리 개념은 철학자들에게 일종의 지적인 강박증을 심어 준 것 같다. 말하자면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보편성, 객관성, 엄밀성, 합리성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며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철학자를 위해서 달리 말하자면 구체적인 현실을 포괄하면서--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성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나무라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다. 오히려 그런 대단한 진리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시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플라톤을 원망하는 쪽이 더 나은 것이다. 나는 시인들을 적으로 돌리고 수사학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은 플라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철학이 더 재미없는 것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이젠버그(W. K. Heisenberg)나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물리학적 업적에 자극을 받은 일련의 철학자들은 철학이 더 이상 모호한 문학작품 같은 형태로 쓰여져서는 안 되며 소위 엄밀한 과학적인 철학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분석 철학자들이 처음에 착수한 작업은 철학의 영역에서 무의미한 언어들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이제 철학자들은 모든 문학적인 수사에서 등을 돌리고 기호논리학과 자연과학적인 언명들만을 가지고 철학을 하게 된다.

내가 보기에 분석철학은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에게는 재앙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철학자들이 말하는 추상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관련을 지어야 할지 난감해 하는 사람들에게 기호논리학을 익히지 않으면 철학 책을 읽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일반 독자를 무시하는 대가를 치루면서 철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객관성, 보편성, 합리성 등의 가치에 대해 어떤 성과를 얻어냈을까? 내가 보기에 상당히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 과학철학의 수 많은 논의들은 몇몇의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과학자들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학적인 작업에 도움을 준 바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과학적인 철학을 표방함으로써 철학이 많은 독자를 상실하고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면, 철학은 글쓰기의 방식에 대해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란 매우 간단하다. 반대의 길로 가는 것, 즉 문학적인 철학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철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한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보편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야 한다는 철학자들의 강박증은 별로 유익한 결과를 낳지 않을뿐더러 철학적으로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독일의 철학적 해석학자 가다머(H. G. Gadamer)는 모든 해석은 일면적이며, 선입견에서 벗어난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지적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철학은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궁극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성, 합리성, 객관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삶의 우연성, 구체성, 유한성을 기꺼이 감수하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문학은 그런 일들을 잘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문예지인 『정신과 표현』(혜화당)에 ‘문학과 철학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2002년부터 연재해 온 글들 가운데 일부를 골라 모은 책이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이 글들은 2007년 6월 8일 책장암으로 돌아가신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 교수의 철학을 내 나름대로 해설한 것에 불과하다. 프래그머티스트인 로티는 참과 거짓, 현상과 본질, 이성과 감성, 주관과 객관, 절대와 상대, 보편과 특수 등과 같은 개념 틀을 깨뜨리려고 했다. 로티의 철학함의 태도는 본질적이며 영원불변한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철학자들의 지적인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폭력성과 오만함을 그에게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 누구의 철학에도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철학을 만들기를 원한 '벗어남'의 철학자였다. 소설이 지성사에서 이룩한 역할에 대한 그의 평가는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다. 로티를 좇아서 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아이러니스트를 자처한다면 문학과 철학의 경계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감성을 지닌 철학자, 이성을 사용하는 문학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고 수사와 개념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인문학적인 삶의 성찰에 동참하는 일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